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宋 景 太
印 刷 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5—9551

(每月 初日發行)

〈協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無料配布)
中 央 共 販 場
☎ 967—4984
☎ 967—8133 사무실

1991年度 第22次定期總會開催

□… 지난3月31日(日) 힐튼호텔에서 代議員…□
□…1백89名中 1백51名과 내빈人事 15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22次 定期總會 盛況理…□
□…에 終了. …□

본회 第9代會長에 宋景太(現會長) 再選 連任期間中 會勢定着 다짐

今般 總會는 8代 會長의 任期만료에 따른 9代會長 경선에 相當한 돌풍이 예상되기도 했다。候補등록 마감일인 3.16日에 전후보의 등록이 豫定대로 마감되고 本格的인 선거체제로 들어간바 있으나 경선후보 3人(宋景太、南廷龍、李鍾奭)이 相互協助하면서 生藥業界 發展에 共同으로 기여토록 하자는 뜻을 모으고 18日에 경선후보를 사퇴하므로서 들뜬 氣分에 접어들고 있던 선거분위기는 급전直下로 냉각해 버렸다。이로서 이날 總會에서 치루기로 되어 있던 선거는 自動취하되고 第9代會長에 宋景太 現會長의 無投票 當選이 確定되었다는 임시 議長의 宣言이 있었다。이로서 本會는 第9代 會長時代가 개막되고 希望찬 3年 時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날 參席하지 못한 會員들을 爲하여 總會과정을 다음에 紹介하고자 한다。

※議事進行

제22차 정기총회 개회 선언:송경태 회장으로부터 정관상 구성요원 1백89명중 과반수가 훨씬 넘는 1백60여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회한다는 선언이 있은후 기간중 공로자 (각지부 추천22명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수상자 명단〉

〈강원도〉 철원군 소장 박영임、정선군 소장 최윤철

〈경기도〉 용인군 소장 최윤식、동두천시 소장 황정근

〈충북도〉 진천군 소장 이지대、청주시 소장 우명규

〈충남도〉 부여군 소장 심만식、온양시 소장 윤동찬

〈전북도〉 부안군 소장 신용섭、군산시 소장 왕길탁

〈전남도〉 순천시 소장 이상확、해남군 소장 박종근

〈경북도〉 경주시 소장 최상환、경주군 소장 조원제、영천시 소장 박영태

〈경남도〉 진주시 소장 양성진、하동군 소장 허영호

〈제주도〉 복제주군 소장 강경휴、남제주군 소장 한대규、이상 22명

송경태 회장 개회 인사:전국에 걸쳐 장날이 없는 날을 택하다 보니 공교롭게도 공휴일(일요일)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게 해 주시니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지난 3년의 임기는 지나고 보니 짧은 순간에 불과 하였지만 그 기간을 대과없이 보내게 해 주신 여러 임원、지부장 각급 분 소장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오늘 총회는 본회 8대 회장 임기중에는 마지막 총회가 되겠으니、모든 안건을 진지하게 심의하여 보다 발전적인 현책을 기탄없이 제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내빈축사:웅진 약업사 대표 이종욱씨는 본회 9대 회장 후보로 나섰다가 생약협회와 생약업계의 보다 건전한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사심없는 후퇴를 하였으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 대의원님들과 합심하여 회세 신장과 회원권익보호에 헌신적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므로、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감사보고:본회 감사인 박영임 (철원군 사무소장)은 90년도 수·지 결산보고에 대한 감사보고에서 모든 임직원이 보다 정진하여 적자요인을 해소해달라고 당부하였다。

90년 사업 실적 심의 의결:지난 3월7일 말모스 호텔 회의실에서 3시간여에 걸쳐 집행부 초안을 이사회에서 예심하여 의결을 한후 유인물로서 본 총회에 상정하였다는 사회자의 설명이 있은후 동의를 물었으나、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

90년 수·지 결산보고 심의 의결:박영임 감사의 감사 보고를 들은바 있고 공인 세무사가 작성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에 붙였으나 별다른 이의 없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

91년 사업계획(안) 심의 의결:교육및 홍보 목적을 병행하여 함북별 축조 심의를 소상히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

91년수·지 예산편성(안) 심의 의결:90년보다 20% 이상 예산증액의 원인은 생약안정기금의 별도 관리와 살도시호 제약재배 및 관리를 위한 인원의 증편과 사무실 및 공관장들의 임대료 대폭 인상에 따른 부득이한 요인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은후 동의에 붙였으나 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의결:이번 총회는 8대회장 임기만료로 인한 9대회장 경선 문제로 정관개정을 위한 전체적 심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 당면한 개정 과제 3개항만을 상정 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사유에서 밝힌대로 시대적 요유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개정을 주부부처에 건의 하여야 한다는 동 기 설명을 들은후 동의에 붙였으나、별다른 이의없이 만장일치 원안대로 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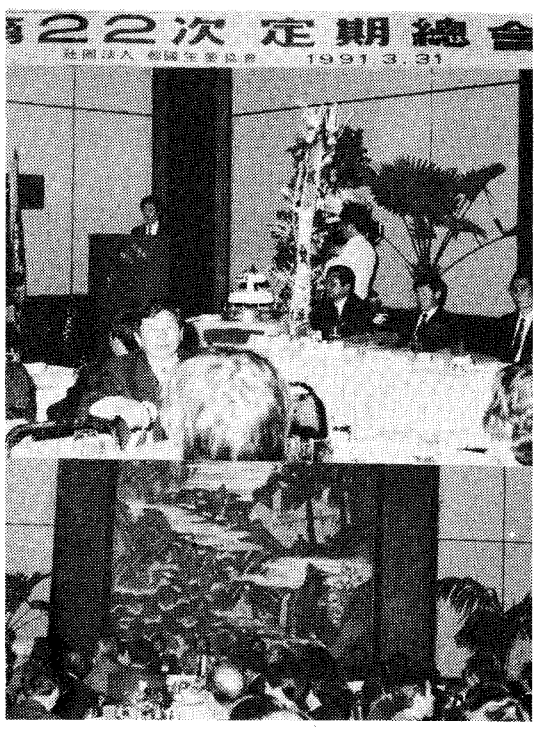
제9대 회장 선출및 임원 개선:

1)제9대 회장으로 송경태 현 회장 무투표 당선 확정 선언:본회 부회장 임연학 임시 의장은 지난 3월7일 91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확정한 9대회장 후보등록 마감일인 3월16일에 송경태、이종욱、남정룡 제후보의 등록이 마감 되므로써 3월30일까지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전개되던중 3월18일 오후2시 협회의 보다 발전적 운용과 생약업계의 상호 보완을 위하여 이종욱、남정룡 양후보가 사퇴하므로서、송경태 후보가 합법적으로 무투표 당선된 결과를 낳았다고 전제하고 이어 본회 제9대 회장에 송경태 현 회장이 무투표 당선 되었음을 선언 하였다。이와 병행하여 참석한 대의원 전원이 박수로서 이를 환영하므로서 송경태 회장의 연임 시대가 개막되었다。

2)부회장 2명 우선 선임:현 이사 25명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91년3월31일부로 임기 만료되므로 22명 전원을 이 자리에서 선출하기는 매우 어렵다。따라서 부회장 2명을 9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 인준을 받은 후 그 회장단에게 임원선임을 위임하는 안을 동의에 붙였으나 우선 부회장 2명만을 선임하자는 제청이 압도적으로 제의되어 송경태 회장이 부회장 2인(이종욱、박재문)을 지명 총회 동의에 붙인 결과 만장 일치로 가결되었음。※부회장 1인으로 선출된 박재문씨는 가정 사정에 의해 후일 사퇴한바 있음。

3)회장단에게 임원 선임권한을 위임 의결:임원선임권한을 본회 관례에 따라 회장단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동의에 붙여져 다소의 반대가 있었으나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4)기타여흥:제9대 회장 송경태씨에게 김영신 대전서구 소장께서 대의원을 대표하여 축하 화환이 증정되었으며 배명철 고문、이종욱 부회장、이목용 이사、배정한 경북 지부장、조명식 익산군 소장이 합석하여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므로서 제22차 정기총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2차 정기총회광경

公示事項

協會定款第10·11·12條에 依據 1991年度 第22次 定期總會 結果를 다음과 같이 公示함。

總會日時=1991年 3月 31日(日) 午後 2時

總會場所=힐튼호텔 지하1층

總會구성요원(代議員)=1百89名中 參加人員:1百51名

〈議決事項〉

1、議 案
○1990年度 事業實績 및 收支決算 報告=原案承認

2、議 案
○1991年度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 編成(案)=原案承認

3、議 案
○定款一部改定(案)=原案承認

4、議 案
○第9代會長選出=宋景太現會長 무투표當選
○副會長2人選出=會長指名選任 議決
○其他 任員選出=會長團에 委任 議決

1991年 4月 20日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長